



쪽박새 전설

최무영

한국조류보존협회 부회장

두견의 우리 이름... '쪽박 바꿔주' 피토하듯 울어

옛날 며느리에게 쌀을 퍼줄 때마다 작은 바가지로 조금 주고는 지은 밥을 다 어떻게 했느냐고 욕박지르는 못된 시어머니가 있었다. 끼니를 굶어 쇠약해진 며느리는 결국 죽고 말았는데 그 녀이 새가 되었다. 죽어서도 큰 바가지로 쌀을 퍼주지 않은 시어머니의 야박스러움에 한이 맺힌 새는 “쪽박 바꿔주, 쪽박 바꿔주” 하며 피를 토하며 울어댔다. 고부간에 얽힌 기막힌 사연을 아는 동네 사람들은 그 새를 「쪽박새」라고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쪽박새. 두견(杜鵑)이의 우리 나라 이름이다. 그 특색있는 이름이 어색한 한문투로 바뀐 것은 죽은 녀므로나마 시어머니에 반항한 며느리의 불효를 못마땅하게 여긴 양반네들의 비위를 거슬렀기 때문이었다.

쪽박새는 울창한 숲 속에 숨어 행동하므로 여간해서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 그러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어대는 습성이 있고, 한창 그악스럽게 울어댈 때는 경계심이 다소 흐트러져 끈질긴 관찰자의 눈앞에 정체를 드러내곤 한다.

가까이서 살펴보면 입을 찌찌 벌리고 우는데 입안이 시빨개서 마치 선혈을 가득 머금고 있는 것 같다. 쪽박새가 피를 토하며 운다느니, 그 또한 핏자국에서 진달래 꽃이 피어났다는니 하는 전설이 공연하게 아니었구나 하는 섬뜩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 빛깔이

선명하고, 울음소리는 격렬하다.

필자는 새들의 지저귀음 ‘운다’고 표현하는 한국식 정서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 가운데 하나지만 소나기처럼 줄기차게 쏟아지는 쪽박새의 그것은 ‘운다’고 써야 맞는다고 생각한다.

넘어진 김에 쉬어 간다고 기왕 말이 나왔으니 새가 ‘노래하는 것’인지, ‘우는 것’인지 교통정리를 분명히 해 두는게 좋을 듯싶다. 오래 전부터 서양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라고 말한 반면에 동양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가 운다’라고 말해 왔다.

왜 그런 정반대의 인식이 성립됐을까? 그 의문에 대해 호사가(好事家)들은 이렇게 설명한다.

20여년전 눈물의 보릿고개가 통일벼 보급과 미국의 잉여양곡 도입으로 나아지기 전까지 한국인들은 해마다 갈마드는 가뭄과 홍수로 배를 곯으며 살아왔다.

구순삼식(九旬三食)이란 말이 실감 나던 그런 궁핍의 시대였던 것이다.

● 부화 직후 숙주새의 새끼 없애고 등지 독차지

구순삼식이란 석달을 세끼 밥으로 때운다는 뜻으로, 물론 이는 ‘백발 삼천장(白髮三千丈)’식의 과장이긴 하지만 그토록 굶주리며 가난하게 살아온 민족이어서 새들의 지저귀도 배가 고파 울부짖는 것으로 느꼈을 것이라는 얘기가.

하기야 뱃가죽이 등쪽에 붙어 정신이 몽롱하고, 눈 앞에 흰 쌀밥과 김이 무럭무럭 오르는 고깃국이 오락가락 하는 사람들에게 새들의 지저귀음이 노래로 들렸을 리는 없었을 터이다.

그런 반면에 빵에 고기에 야채에 과일에 술에 먹을거리가 지천으로 쌓여, 쌀이 없으면 빵이나 고기를 먹으면 될 것이지 왜 굶는

냐고 바보같은(?) 한국인들을 딱하게 여기던 서양 사람들은 늘 배가 부르니까 새도 즐거워 노래를 부른다고 느꼈음직하다.

같은 동양권의 나라인 일본의 경우도 명치유신 전과 후의 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새의 지저귀미 울음과 노래로 다르게 표현되는 것을 볼 때 새의 지저귀미에 대한 인식은 국력과 국민생활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새가 우느냐, 노래하느냐를 가리는 것은 사람들의 일방적인 생각이므로 무의미하며, 실제로는 자기들끼리의 신호와 연락 수단으로 쓰일 따름이다.

각설하고 쪽박새도 빠꾸기처럼 무책임하게 남의 등지에 알을 낳고 맡기는 암채족으로 휘파람새나 산술새 같은 작은 새의 등지에 실례를 한다.

몸길이 25cm, 회색 등과 회고 촘촘한 가로줄 무늬가 있는 배를 갖고 있어 빠꾸기와 흡사해 보이거나 덩치가 훨씬 작다.

우리 나라에서는 흔한 여름새로 중국, 히말라야, 일본, 한국등지에서 번식하고 겨울에는 대만, 태국, 인도 등지로 날아가 월동한다.

갈색의 알은 숙주새가 품은 지 9~10일 만에 부화되고, 알에서 깰지 2~3일 안에 숙주새의 새끼나 알을 업어치기 한 판으로 소탕하고 등지를 독차지 한다.

사는 곳은 동부 아시아의 우수리 지방, 만주, 일본,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 말라가시 등으로 우리 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으며 봄, 가을의 이동 시기에는 도시 부근에서도 "쪽박 바퀴주" 또는 "홀딱 자빠졌다"하는 독특한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

쪽박새 얘기를 쓰다가 문득 달력을 보니 어느새 입춘, 올 봄엔 잔잔한 숲속에서 애뜻하게 우짖는 쪽박새 울음 소리를 들으며 사흘에 피죽 한 그릇 얻어먹기도 힘들던 어려운 시절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볼 일이다. ●